

‘총상금 8억’ 경마 코리안더비 13일 개최 | 올해의 최강 3세마는?

메니피 혈통의 장기 집권이나...새로운 명마 왕조의 탄생이나

‘상승세’ 디바이드윈드 ‘최강’ 초인마 메니피 자마들 6년 연속 우승 노력 월드컵, 오픈서 자마 자존심 지킬까 액톤블레이드·마스크 등 거센 도전

국산 우수 3세마를 발굴하는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총상금 8억원의 제21회 코리안더비(GⅠ)가 13일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로 열린다. 서울과 부경을 대표하는 국산3세마들이 모여 1800m 트랙에서 대결한다. 그동안 이 경주는 파이널보스, 파워블레이드 등 메니피의 자마들이 5년 연속 우승하며 강세를 보여왔다.

●디바이드윈드(부경, 수, 3세, 한국, R80, 김영관 조교사, 승률 75.0%, 복승률 75.0%) 두 번의 대상경주를 포함해 4연승을 거두며 출전마 중 가장 기세가 좋다. 메니피의 자마로 출전마 중 가장 높은 레이팅 80을 보유했다. 4월 KRA컵 마일(GⅡ)에서 액톤블레이드, 월드컵, 마스크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월드선(부경, 수, 3세, 한국, R61, 백광열 조교사, 승률 28.6%, 복승률 42.9%) 2017년 국내 싸수마 순위 3위 오픈서의 자마다. 지난해에는 오픈서의 자마 중 가장 많은 상금 3억여 원을 획득했다. GC(남아공) 트로피, 김해시장배를 연속으로 2위와 큰 차이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디바이드

윈드와는 2전 2패로 이번 경주로 설욕을 기대한다.

●액톤블레이드(부경, 수, 3세, 한국, R79, 김영관 조교사, 승률 50.0%, 복승률 87.5%) 랫츠런파크 부경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김영관 조교사의 기대마다. 초인마, 월드컵, 디바이드윈드 등이 출전한 2017년 브리더스컵(GⅡ)에서 우승했다. KRA컵 마일(GⅡ)에서는 1위마 디바이드윈드에게 3/4마신(1마신=약 2.4m) 차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다.

●초인마(서울, 수, 3세, 한국, R65, 이관호 조교사, 승률 50.0%, 복승률 75.0%) 메니피의 자마로 국산 2세 최강마를 선

발하는 주버나일 시리즈의 2017년 최우수마다. 경기도지사배, 과천시장배를 연승했고, 브리더스컵(GⅡ) 준우승을 차지했다. 초인마에 기승할 최범현 기수는 작년 코리안더비에서 파이널보스와 우승한 바 있어 2연패를 노린다.

●마스크(서울, 수, 3세, 한국, R65, 임봉춘 조교사, 승률 37.5%, 복승률 62.5%) 2세마 시절에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최근 상승세다. 3월 스포츠서울 배에서 가운챌프, 초인마 등 인기마를 상대로 꺾잡 우승하며 임봉춘 조교사에게 5년 만의 대상경주 트로피를 안겨주었다. 데뷔 이래 8번 출전해서 순위 상금을 놓친 적이 없다.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디바이드윈드



‘아시아경마회의, 함께 달린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왼쪽 다섯번째)과 한국마사회 스포츠단 서효원 선수(세번째), 한정화 감독(네번째), 이경근 감독(여섯번째), 김재범 코치(일곱번째) 등이 10일 랫츠런파크 서울 본관에서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ARC)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고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ARC 개최로 한국경마의 위상제고와 더 나아가 긍정적인 국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하겠다. 유의미한 회의 결과를 도출해 전 세계 경마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 건립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아시아경마회의, 한국 경주마들도 뚝다

13일 랫츠런파크 서울 ARF 기념경주 개막 분위기 고조...한국경마 위상 업

ARF(아시아경마연맹, Asian Racing Federation) 기념경주가 13일 랫츠런파크 서울 제8경주로 열린다.

ARF는 중동,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27개 경마시행국이 모여 만든 연합이다. ARF는 경마 선진화를 위한 지식 공유

및 정책 개혁의 장으로서 아시아경마회의(ARC, Asia Racing Conference)를 2년마다 개최하는데, 올해는 한국마사회가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를 13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ARC는 40개국 500명 이상의 대표단이 방문하는 대형 국제 행사다. 회의 및 행사는 코엑스, 랫츠런파크 서울 일대에서 진행한다. 100년에 가까운 한국경마 사상 세 번째로 1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개막일인 13일에는 국제 경마계 인사들이 랫츠런파크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ARF 기념경주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시상식은 한복을 입고 진행하며 김낙순 한국마사회장과 원프리드 ARF 의장, 루이로마네 국제경마연맹(IFHA)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승자에게는 ARF 사무국이 제작한 특별 트로피를 전달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아시아경마회의에 참가하는 전 세계 경마관계자들 앞에서 한국경마 수준을 보여줄 기회이며, 한국 경마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정용은 기자



미국 켄터키더비 ‘저스티파이’ 우승

5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치찰다운 경마장에서 펼쳐진 켄터키더비(Int'l GⅠ, 2000m, 더트주로)에서 2월 데뷔한 저스티파이(3세, 수, 미국·사진)가 우승했다. 1875년 첫 시행된 켄터키더비는 세계 경마를 대표하는 경주 중 하나다. 144회를 맞은 올해 대회 총상금은 약 220만 달러(한화 약 23억7000만원)로 3세 경주마만 출전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5만 7813명이 몰려 역사상 8번째로 많은 관객을 기록했다. 켄터키더비 관계자는 작년보다 약 13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의 순이익의 증가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켄터키더비는 프리크니스 스타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와 함께 3관 경주(Triple Crown) 중 하나다. 우승자에게 장미꽃 목걸이를 걸어주는 전통으로 ‘장미를 향한 질주’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트 줄렘(Mint Julep)이라는 칵테일을 마시며 경주를 즐기는 풍습으로도 유명하다.

홍콩자키클럽, 챔스데이 성공적 개최

홍콩자키클럽이 4월29일 홍콩 샤틴 경마장에서 챔피언스데이(Champions Day)를 최초로 개최했다. 챔피언스데이는 상반기에 나누어 시행하던 GⅠ 경주 3개를 하루에 모아 개최하는 이벤트다. 이날 열린 지정 경주 체어맨스 스프린트 프라이즈, 챔피언스 마일, Audemars Piguet QEⅡ cup(이하 QEⅡ cup) 등은 모두 세계 100대 GⅠ 경주에 뽑힐 만큼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세 경주의 상금 합계가 5800만 홍콩달러(한화 약 80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인 QEⅡ cup에서는 홍콩의 인기 경주마 파키스탄 스타가 우승했다. 체어맨스 스프린트 프라이즈와 챔피언스 마일까지 모두 홍콩 경주마가 승리를 차지했다.

경주마 등번호판-기수 모자 색 통일

한국마사회는 5월부터 기수 모자 색과 경주마 등번호판 색상을 통일시켜 경주중 경주마를 식별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였다. 2016년부터 마주에 따라 기수복을 입는 마주복색이 도입되면서, 기수복색에 익숙한 고객들의 경주마 번호 식별이 어려워졌다. 한국마사회는 기존에 동일 색상이었던 등번호판을, 경주마 번호에 따라 색을 달리해 기수모자와 색상을 통일했다. 단, 대상·특별경주는 현행과 같이 Grade급 적색, Listed급 적색, 특별경주 녹색으로 경주격별 차별화된 색상을 유지할 방침이다.



스포츠토토

한화 6~7점대-NC 4~5점대 1순위

야구토토 스페셜 35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11일 열리는 2018시즌 한국프로야구(KBO) 프로야구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35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45.94%가 한화-NC(3경기)전에서 원정팀 NC의 근소한 우위를 예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화의 승리 예상은 41.25%를 기록했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 박빙승부 예측은 12.82%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 예상에서는 한화(6~7점), NC(4~5점)이 4.41%로 1순위를 기록했다.

토토팬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최근 물오른 경기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적재적소에 타치는 타선과 함께 리그 최다 세이브(13개)를 기록 중인 정우람의 마무리가 승리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한화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3위(20승16패)에 올라있다.

반면 리그 9위(16승23패)로 하위권에 머

물려 있는 NC는 5월에만 5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거듭하고 있다. NC는 대량 실점이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NC는 3일부터 6일까지 펼쳐진 네 경기에서 무려 41점을 실점했고, 9일 SK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도 6점을 내주며 패배했다. 최근 물오른 기세와 함께 안방의 이점을 가진 한화가 부진에 빠져있는 NC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한판이다.

이어 두산-넥센(1경기)전에서는 넥센 승리 예상(44.67%)이 두산 승리 예상(41.71%)보다 높게 집계됐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3.63%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 예측에서는 두산(4~5점)-넥센(6~7점)이 5.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SK-LG(2경기)전에서는 LG 승리 예상이 46.3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뒤이어 SK 승리 예상은 40.04%로 나타났고, 양팀이 같은 점수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은 13.62%로 가장 낮았다. 최종 점수대 예측에서는 SK(2~3점)-LG(6~7점)이 5.0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축구팬 84% “토토넘, 레스터 잡는다”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12일과 13일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차에서 국내 축구팬들은 토트넘(홉)-레스터(원정)전에서 홉팀인 토트넘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84.11%를 획득했고 양팀의 무승부 예측과 레스터의 승리 예상은 각각 9.63%와 6.26%로 나타났다.

원정으로 올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를 치르는 EPL의 강호 아스널(65.81%), 첼시(73.87%), 맨체스터시티(67.90%)는 각각 허더즈필드(15.13%)와 뉴캐슬(11.57%), 사우샘프턴(13.99%)을 맞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K리그에서는 홉팀이 모두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제주와 수원의 경우 각각 71.68%와 73.08%를 획득해 이번 회차에서



축구팬들의 깊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EPL·MLB 총 7경기 대상 토토언더오버 19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언더오버’ 19회차가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9회차 발매를 개시한다. 이번 19회차는 오는 13일과 14일에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경기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경기 토토팬들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EPL에서는 허더즈필드-아스널(1경기)전과 리버풀-브라이턴(2경기),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왓포드(3경기), 토트넘-레스터(4경기)전이 선정됐으며, MLB에서는 토론토-보스턴(5경기), 마이애미-애들라타(6경기), 휴스턴-텍사스(7경기)전이 뽑혔다.

한편 이번 ‘토토언더오버’ 19회차는 13일 밤 9시 50분 발매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및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타맨(www.betman.co.kr)을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